

《주머니 속의 고래》

고래를 만나다

글 강미(청소년문학가,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울산에는 국보 제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나는 지금 경주로 이어지는 35번 지방도로 중간쯤에서 핸들을 꺾어 그곳으로 간다. 예전과 달리 진입도로가 넓고 반들반들하다. 쉽고 빠르게 계곡 깊숙이 닿는 대신 신비로움과 장엄함은 많이 숨어버렸다. 그렇긴 해도 언제나 이 길로 들어서는 느낌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으로 여겨진다. 블랙홀의 구멍 같은 것을 통과하여 현대에서 고대로 넘어가는 그런 기분이다.

거북이가 납작 엎드린 형상이라는 반구대 가장 깊숙한 곳에 암각화가 있다. 대곡천 건너편에 우뚝 서 있는 평면 바위,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성스러운 기원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다 고래와 육지동물, 배와 작살 등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3,000년 후세 사람인 나는 최근 설치된 전망경을 통해 꿈틀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본다. 특히 툭툭 솟구치는 고래에 내 눈과 마음은 동시에 매료되고 만다. 그래, 고래다. 고래가 나를 며칠 동안 생각 속에 잠기게 하고 결국 이곳까지 이끈 것이다. 머릿속에서 암각화의 고래와 《주머니 속의 고래》가 겹친다. 마찬가지로 바위를 쪼는 고대인과 한 줄 한 줄 문장을 엮어간 작가 '이금이'가 한 버리로 끌어올려진다. 나는 암각화가 보이는 오솔길 옆 나무벤치에 앉는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머니 속의 고래》를 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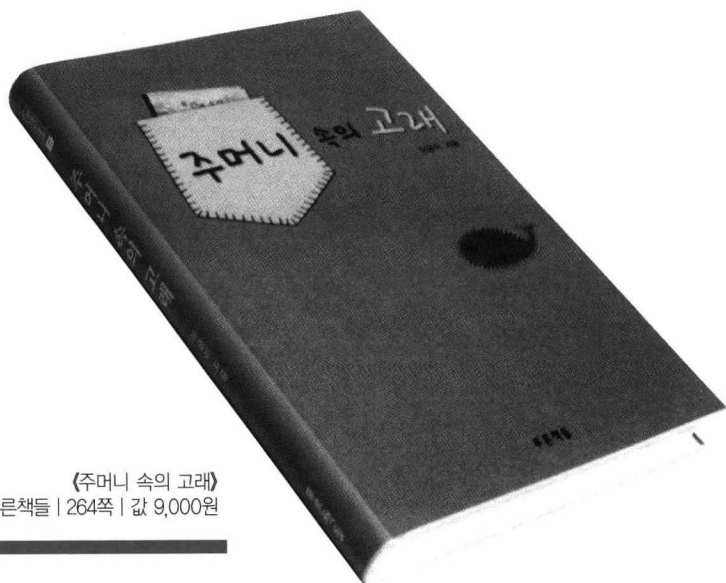
우선 이 소설은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말만큼 광범위한 표현도 없지만 이것만큼 작가를 안심시키는 반응이 또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작가의 솜씨와 공들인 문장 때문이라고 일단 말해 놓고 이제 좀 더 자세히 훑아 보겠다.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중학생인 민기, 연호, 준희다. 얼굴이 잘생겨 연예기획사로부터 명함을 받기도 하는 '민기'는 오디션에 보러 다니고, 민기 집에 세 들어 사는 '연호'는 증조 할머니와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간다. 얼굴에 얼룩 같은 점을 가진데다가 공개입양자인 '준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며 방황한다. 전체 17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에서 민기, 연호, 준희는 순서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초점화자가 다르다는 뜻인데 이런 전략은 3인칭이면서도 1인칭시점의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 전략의 선택은 이 소설의 재미를 이루는 성공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령 3장에서 학년부장에게 혼나고 교실로 돌아온 준희가 낯선 여자애를 만나게 되는데 5장에서 그 애가 연호이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든지, 2장에서의 드림박스 지실장이 3장에서 준희의 생모와 동일인으로 재조명되는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춤과 드러냄, 긴장과 이완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작가의 역량이 빛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토를 달자면 민기, 연호, 준희의 순서대로 돌아가는 이 초점화자가 17장, 연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완벽한 균형보다는 약간의 빛나감이 아름답긴 하다. 작가의 계산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연호의 입을 통하는 17장은 뭔가 한꺼번에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쉽고, 준희의 이야기를 몇 단락 잡아 17장 속에 합친 것 또한 독자로 하여금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이 소설은 착하다. 민기, 연호, 준희는 물론 민기 부모, 연호 증조할머니, 준희의 양부모와 생모, 모두 건전하고 긍정적이다. 다소 억지를 부려 연호의 어머니와 민기의 누나 정도를 반동인물로 볼 수 있으나 그들 또한 반듯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꿈은 접는다든지, 공부만 잘하는 싸까진데 알고 봤더니 자기 세계가 분명하다든지 해서 그들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든다. 연호와 준희의 우울과 냉소도 마찬가지다. 너무나 삶에 지쳐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할 줄 모르던 연호는 단숨에 엄마와 세상을 받아들이고, 양부모의 친절과 생모의 출현을 뼈뺌하게만 받아들였던 준희는 큰 계기 없이 이해해 버린다. 그런데 나는 이 착함이 싫다. 지금 학생들이 민기처럼 공부로 마음을 잘 돌릴까, 준희처럼 열등의식을 쉽게 벗어던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들기 때문이다. 나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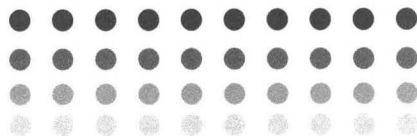
《주머니 속의 고래》
이금이 | 푸른책들 | 264쪽 | 값 9,000원

우, 성장기의 콤플렉스는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평생을 가는 게 그놈 아닌가 싶다. 게다가 중학생의 생활을 가장 근접촬영하고 있는 소설,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꿈을 다양한 각도에서 잘 모색하고 있는 소설이라면, 나 또한 그 지점을 환호하며 읽었다면, 이 정도의 욕심은 부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이 소설의 미덕은 주인공의 눈높이에 맞는 서술과 묘사이다. 중학생이 느끼고 생각할 만한 표현들을 현실감 있게 잘 잡아내고 있다.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직유나 은유도 그들의 눈을 좇아 드러낸다. 세심한 관찰도 관찰이거니와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령 연호가 초점화자인 장에서 “야윈 달이 주눅 든 아이처럼 주뻛거리며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연호의 처지와 오버랩되며 그 표현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준희가 말하는 장에서 “또다른 아이를 키우면서, 너를 그리워할 일이 무서웠어”는 생모에 대한 준희의 불만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나라에서 주는 밥은 우리보담 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줘야 안 쓰것냐?”(2장), “엄마가 아직도 그 좌절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따름”(8장),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더 상하는 뱀이니깐 그래서 그 라는 거여”(11장), “걱정이 곧 삶의 힘인 엄마”(16장) 등의 빛나는 문장들을 보라. 삶과 딱 붙어있으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문장들이라 밑줄을 긋지 않을 수 없다.

요즘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변화로 독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청소년문학에 대한 열망도 커져가고 있는데 비해 국내작가들의 생산 활동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금이의 전작 《유진과 유진》은 우리에게 감동과 생각거리를 전해주 수작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므로 《주머니 속의 고래》는 그녀의 두 번째 청소년소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꿈을 간직하고 추구하는 현대 청소년의 삶을 가장 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추천할 만하다.

가득이나 짧은 겨울해가 꼬리를 사리고 있다. 나는 책을 덮고 암각화의 고래를 다시 바라본다. 암각화의 고래와 《주머니 속의 고래》가 겹쳐 보였던 내 첫 느낌은 적중했다. 그 시대의 꿈과 소원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선사시대의 예술가와 현대 중학생의 꿈을 노래하고자 한 이금이 작가를 한 버리로 끌어올린 것도 가히 틀리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일란성쌍둥이인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벤치에서 일어난다. 이제 블랙홀의 구멍을 통과하여 삶의 현장으로 귀환할 때다. 나에게도 붙들어야 할 고래가 있으니깐. **◆◆**



● 이 글을 쓴 강미는
경성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1년 우리교육 소설 공모에 〈민세의 골리앗〉이 당선되었고, 2004년에는 단국대학교 주최 교단문예상에 〈겨울, 블로그〉가 당선되었다. 2005년 제3회 푸른문학상에서 〈길 위의 책〉으로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길 위의 책〉을 펴냈고, 재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이다.